

“아이 꼭 낳아야 하나요”... 사라지는 아이 웃음소리

MZ세대 결혼 新풍속도

〈4〉출산율 '0명대' 시대

광주·전남 출생아 수 10년 새 각각 51%·47% 감소
최근 5년 원아 6천500여명·초등생 1만5천여명 줄어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유아원 폐원과 함께 원아와 초등생 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71명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

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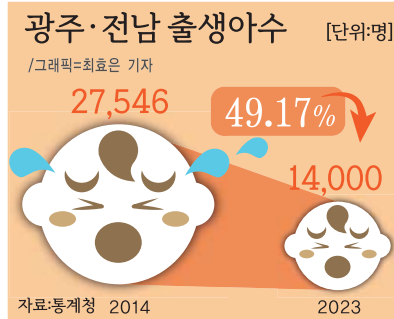
5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4년 1만2천299명에서 2018년 9천105명으로 1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천200명으로 10년만에 51.29%(6천529명)나 축소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2014년 1만4천817명에서 2018년 1만1천238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천800명을 기록하면서 10년 새 47.35%(7천17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유아원 폐원과 함께 원아와 초등생 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2016년 정점을 찍었던 광주·전남의 유치원은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 추세로 광주는 한 해에 최대 14곳, 전남은 최대 12곳이 폐원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광주는 ▲2019년 312곳 ▲2020년 298곳 ▲2021년 294곳 ▲2022년 288곳 ▲2023년 286곳이었고, 전남은 ▲2019년 542곳 ▲2020년 530곳



▲2021년 524곳 ▲2022년 516곳 ▲2023년 514곳이었다.

원아의 경우 최근 5년 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천341명, 3천224명이 줄었다.

지난 2019년 광주·전남 지역 원아는 각각 2만3천252명, 1만8천682명이었지만 지난해 광주는 앞자리 수가 바뀐 1만9천911명, 전남은 1만5천458명이었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광주지역 초등학생은 2019년 8만8천990명, 2020년 8만6천419명, 2021년 8만4천998명, 2022년 8만3천929명, 2023년 8만1천730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 줄고 있다.

전남지역도 2019년 9만4천952명, 2020년 9만2천406명, 2021년 9만1천229명, 2022년 9만238명, 2023년 8만7천46명으로 떨어졌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최근 5년간 초등학생 1만5천166명이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유아원 폐원이 가속화되고 초등학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교육 수준 양극화와 지역 격차가 거세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6년 이후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저출산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낙후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경우 신혼부부와 중산층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모여 들면서 구 시가지들은 쇠퇴함과 동시에 교육 여건 악화와 빈곤화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인구 소멸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 대해 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은솔기자



돌봄이웃에 전달할 꾸러미 포장 5일 광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한가위 온(溫)기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할 송편과 과일, 전, 김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순천상의 “제조업 72% 추석 상여금 지급”

145개 관내 업체 조사...35.1% 금일봉 형태 지급

순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145개의 관내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추석 연휴 기간과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개사(90.3%)가 5일간 휴무할 예정이며, 운송업종이나 레저스포츠 업종 등은 별도의 휴무 계획이 없거나 1일만 휴무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사 참여 기업 중 71.7%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

며, 28.3%는 지급 계획이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금일봉 형태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곳이 51개사(35.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53만 1천 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제 실시 기업은 19개사(13.1%)이며, 선물 및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14개사(9.7%)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급의 20-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1개사였으며, 기본급의 51-100%를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9개사로 조사됐다.

이후 순천상의 회장은 “순천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차례상 비용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비슷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100번째...

콘진원, 스토리움 사업화 달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일 “경쟁력 있는 스토리를 가진 창작자와 새로운 소재를 찾는 콘텐츠 제작자, 투자자,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스토리 매칭 플랫폼 ‘스토리움’을 통해 100개 작품의 사업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스토리움에서는 창작자가 기획 전후의 스토리를 등록하면, 플랫폼에 등록된 1천여명의 제작자와의 매칭을 통해 ▲드라마 ▲웹드라마 ▲영화 ▲출판(웹소설)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등 장르 불문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스토리움 오리지널 IP 작품 중 대표작인 ‘내 친구의 졸업식’은 스토리움의 100번째 작품으로 LG U+모바일 v 및 왓츠를 통해 공개됐다.

신진작가 발굴부터 N차 사업화까지 100개의 작품이 사업화에 성공한 배경에는 스토리움의 원스톱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출범한 스토리움은 현재까지 누적 회원 수가 2만1천600명에 달하고 누적 매칭 수는 2천688건을 기록했다.

스토리움을 통해 사업화된 작품에는 ▲총관객 수 85만명을 동원하며 신진 창작자가 기획한 콘텐츠 IP의 가능성을 입증한 영화 ‘백두산’ ▲2023년 10월 개봉한 ‘화사한 그녀’ ▲2022년 대중상과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불도저에 탄 소녀’ 등이 있다.

/안태호기자



해양에너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건설”

제13차 ESG위원회 개최...무사고 달성 추진 과제 공유

㈜해양에너지는 전남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제13차 ESG위원회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주요 뉴스 공유와 WHSE(작업장보건·안전·환경)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분산에너지특별법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각계의 의견을 나눴다.

㈜해양에너지는 ‘WHSE 경영을 통한 사고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중점 추진 과제인 Top 5 Risk, 안전문화, 보건환경관리, 안전시스템, 시설안전관리, 비상대응 등 6가지

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했다.

특히, 차량용 가스누출 탐지장비 신규 구입 등 안전장비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7일 예정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가족·동료들과 함께 비엔날레 관람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정은솔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을 그리는 작가

몽환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을 통해 사색하게 하는 자연이 주된 소재가 되며 공간과 장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감동적 인상과 탐구로 근경을 밀도 깊은 분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의 작품 중심인 정경에 집중시켜 묘사해 내며 후경은 흐릿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처리해 작품의 공간감과 완성도를 높여 평면이지만 마치 3D 화면처럼 독특한 시각적 느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꽃과 풍경의 시간을 끌어내어 화사하고 정겨운 자연의 표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 연작인 작품을 통해 매화는 우리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끼가 긴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세월의 풍파와 연륜을 느낄 수 있고 거칠고 투박한 선들에서 꽃이 선사하는 향기와 부드러운, 그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거칠고 부드러운 것이 난무하는 화면은 단색의 색채를 대비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러나 실제의 표면은 나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투박하게 보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면 실제감이 있는 사실적인 작품으로 착시를 불러 보이기도 하여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같은 빛나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들은 깊은 낮침에서 깨었을 때 사물과 시간을 한동안 가능 못할 때처럼 재현과 관념적 경계를 익숙하게 떠돌며 생경하고도 묘한 화면을 자아낸다. 캔버스에 만개한 매화가 사실적이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그렇다.

강 남 구 작가

개인전 53회 | 단체전 및 초대전 700회 | 아트페어 30회

실사 대한민국의미술대전, 고양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순천시 미술대전, 경주미술대전, 삼진강미술대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역임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용평리조트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